



# 서비스 정의서: 발밤 (Balbam)

## 발밤 (Balbam)

"사용자의 보폭에 맞춘, 가장 인간적인 AI 이동 비서"

### 1. 서비스 명 (Project Name)

- **발밤 (Balbam)**
- **의미:** '발밤발밤(가는 곳을 정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)'에서 착안. 급하게 뛰지 않아도, AI가 계산한 내 속도대로 목적지에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돋겠다는 의지를 담음.

### 2. 한 줄 요약 (Elevator Pitch)

- 사용자의 보행 패턴을 학습하고, 제작자의 현장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'진짜' 도착 시간과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초개인화 대중교통 내비게이션.

### 3. 기획 배경 및 문제 제기 (Problem Statement)

- **기존 앱의 경직성:** 모든 사용자의 보폭이 같다고 가정하는 일률적인 환승 시간 안내.
- **실시간 대응 부재:** 버스 지연, 지하철 연착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경로를 다시 찾아야 하는 수동적 시스템.
- **막차 데이터의 불신:** (실제 경험 기반) 서울-경기 장거리 통학 시, 지도 앱마다 막차 시간이 다르고 실제 도로 상황(정체 등)이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이중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.
- **기술의 정체:**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형화된 길찾기 알고리즘.

### 4. 핵심 솔루션 (Solution)

- **개인화 학습 (AI Pacemaker):** GPS 기반으로 사용자의 평소 보행 및 환승 속도를 데이터화하여 '나 전용' 이동 시간 계산.

- **실시간 동적 경로 (Active Rerouting):** 경로 이탈이나 지연 발생 시 즉시 따릉이, 킥보드, 택시 등을 포함한 '지각 방지 대안' 제시.
- **데이터 정합성 (Real-time Accuracy):** 공공 API에만 의존하지 않고, 최근 해당 노선의 운행 패턴과 도로 상황을 결합해 막차 탑승 가능 여부를 정밀 예측.
- **사용자 참여형 가이드:** 제작자와 사용자가 직접 수집한 현장 정보(지하철 안내판 실제 문구 등)를 반영해 초행길 가독성 극대화.

## 5. 타겟 사용자 (Target Audience)

- **수도권 장거리 출퇴근러/통학러:** 1분 차이로 막차를 놓치면 치명적인 사람들.
- **길치 및 초행길 방문자:** 복잡한 환승역 안내판에 혼란을 느끼는 사용자.
- **완벽주의자 (MBTI 'J'):** 변수를 통제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보장받고 싶은 사용자.

## 6. 핵심 기능 (Key Features)

1. **AI 하이브리드 길찾기:** 실시간 교통 상황과 사용자 패턴을 결합한 독자적 알고리즘 경로.
2. **사용자 학습형 페이스메이커:** "지금 걸음 속도로는 환승 불가, 30초만 뛰세요"와 같은 맞춤형 가이드.
3. **능동적 상황 대처 비서:** "버스 잘못 타셨나요?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길 건너면 바로 복구 가능합니다"라는 실시간 코칭.

## 7. 서비스의 목표 (Vision)

- **시장 혁신:** 네이버 지도, 지하철종결자가 장악한 시장에 'AI 기반 초개인화'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.
- **심리적 안정감 제공:** 환승역에서 앞사람이 뛴다고 덩달아 뛰지 않아도 되는 세상, "이 차 탈 수 있을까?"라는 초조함이 사라지는 이동 경험 제공.
- **최후의 보루:** 어떤 상황에서도 집에는 갈 수 있게 해주는,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가장 신뢰받는 '마지막 수단'이 되는 것.